

##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

### The Time Management Behavior Under the Time Inclination of Housewives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李 那 美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Nah Mae, Lee*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池 英 淑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 Young Sook, Chi*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라 시간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시간성향의 중요성을 밝히고, 주부의 생활경영과정에서 시간사용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시간성향은 단선적 시간성향이기보다는 복합적 시간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시간성향의 차이를 보면 변인은 거주지와 취업여부였다. 셋째,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은 사회화를 제외한 모든 관리행동 즉 계획/우선순위( $p < .001$ ), 표준설정/단순화( $p < .05$ ), 목표설정( $p < .001$ ), 심리적 긴장감 해소( $p < .001$ ), 분담화( $p < .05$ ), 기계화( $p < .05$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관리행동에서 복합적 시간성향의 주부가 관리행동을 더 잘 하였고, 특히 계획/우선순위와 목표설정 관리행동에서 월등히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 서 론

### 1. 연구목적

시간의 흐름이 곧 인간의 역사이며, 인간의 역사는 시간과 더불어 이어져 오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우리 존재의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 자체인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한 민족의 행동성향으로 대변되는 문화의 영향(Grama, 1980)을 받는다. 이것은 한 민족의 기질은 그 민족이 어떤 풍토 속에서 살아왔으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형성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유성은, 1994 : 19).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미국인의 짧은 미래시간관은 미국의 짧은 역사가 필연케 한 과거 시간관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Hall, 1965). 그러나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시간성향은 미국인보다도 더 짧다. 김재은(1987 : 127)은

\*1994년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남못지 않은 긴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한국인처럼 과거를 곧 잘 잘라 버리는 민족도 드물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이 경험한 급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이규태, 1983; 김재은, 1987; 유성은, 1994). 즉 20세기의 큰 변화만을 보더라도 일제통치, 해방, 한국전쟁, 군사쿠데타, 올림픽, 민주화라는 역사의 격류를 타고 왔다. 이러한 격류 속에서 개인의 계획은 유명무실해지고 계획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것을 먼저 차지해야 하는 先占意識으로부터 조급함이라는 문화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이규태, 1983: 165).

“조급함”으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시간성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추진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로 계획성이 부족하며, 朝嶺募介式的 기본에 너무 치우치고, 무질서 의식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교통문화와 무계획적인 생활관에서 비롯되는 허례의식과 건전한 오락문화의 빈곤(유성은, 1994: 130-136) 등 수많은 사회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성향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다른 생활행동 유형을 만들 것으로 사려된다. 즉 시간의 사용은 궁극적인 심리적 행복감의 성취와 이에 반하는 구체적인 제약과의 연결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시간을 가족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주로 시간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이승미, 1989;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 1991; 조성은, 1991; 한경미, 1991, 1992, 1993; 제미경·박명희, 1993; 홍성희, 1993). 또한 가족이 시간을 어떤 활동에 어떻게 할당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가족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 주는 척도가 된다는 인식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한경미, 1991: 172).

이와 같이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家庭은 가족구성원의 육구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역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생

태적 관계속에서 다양한 가족자원의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이때의 관리적 자질이 능력으로서의 개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개인의 시간성향은 계획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의 관리자로서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라 시간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시간성향의 중요성을 밝히고, 주부의 생활영과정에서 시간사용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가치관 연구의 한 자료가 되고자 하는데 있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주부의 시간성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시간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라 시간관리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시간성향(Time Inclination)

시간성향(time inclination)이란, 문화적·역사적 배경하에서 학습된 일정한 사고와 행동이 지속되는 기제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심리적 유인(誘引)이나 동기(動機)가 표면화되어 시간을 인식하고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특성이다.

### 2) 시간관리행동

시간성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시간관리는 목표로부터 시작한다. 목표가 없이는 시간관리행동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시간을 잘 사용했는지 혹은 낭비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인 목표설정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 계획/우선순위 및 시간사용과정에 수행되어야 하는 표준변경/단순화, 분담화, 기계화, 사회화 그리고 이들 모두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심리적 긴장감 해소 등 7개 영역으로 시간관리행동을 분류하였다.

## 4.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시간개념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이러한 개념의 틀을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부의 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써 시간성향으로 나타나는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시간관리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sup>1)</sup>으로서의 시간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테크와 관련하여 문헌을 통한 탐색연구를 1차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으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연구목적에 접근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시간성향(Time Inclination)

홀(Hall, 1965)은 인간의 시간개념을 속도개념으로 해석하여 과업수행을 위한 시간사용이 빠르거나 느린가에 따라서 인성유형을 단선적 유형(monochronic type)과 복합적 유형(polychronic type)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선적 인성은 한번에 하나의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관계의 복잡성이 적어서 한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 하는 인성자이다. 복합적 인성은 동시에 몇 가지 활동을 무리없이 행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인성은 사람의 행동 유형의 특성적인 비율과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사람들은 느리고 조직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수행하고자 한다. 산업체에서 정상적인 속도보다 느린 시간속도 성향을 가진 사람은 느리고 더 신중하게 일하는 것이 이익이 되며 평가받는 직업을 계획해야 한다. 이처럼 활동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인성특성은 시간성향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드먼과 로젠먼(Fridman & Rozenmun, 1970)은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10년간 연구한 결과 관상동맥질환(血栓)과 관련된 행동유형을 A유형

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유형을 B유형으로 하여 각각의 행동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A유형의 시간성향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사람으로 작업완성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봐 안달하며, 역부족인 과업에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가를 무시하는 일의 노예이다. B유형은 되도록이면 느긋하게 일을 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계획없이 과업수행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도취하고, 공적인 일에서도 친족관계나 개인적인 생각,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Januz & Jones, 1984).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행동특성은 시간성향에 따라 구별되는 행동특성임을 알 수 있다. 두 가지의 시간성향으로 나타나는 이들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심리적 유인이나 동기가 표면화한 것으로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가에 영향을 준다.

블리스(Bliss, 1976)는 ‘속도는 변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목표지향적인 사람의 속도는 활기있고, 과정지향적인 사람의 속도는 좀 더 느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성향은 인간의 행동과 과업수행상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개념을 형성하는 시간성향을 중심으로 하여 단선적 인성특성을 갖는 사람의 행동특성과 복합적 인성특성을 갖는 사람의 행동특성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인간의 시간개념 중에서 홀(1965), 블리스(1976)와 프리드먼·로젠먼(1970)의 연구에서, 홀(1965)이 속도개념을 바탕으로 분류한 인성적 특성에서 복합적 인성자는 블리스(1976)의 목표중심형 및 프리드먼과 로젠먼(1970)의 A유형과 유사하고, 단선적 인성자는 과정중심형 및 B유형과 유사한 행동유형을 보이는 시간개념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인의 시간문화적 특성인 ‘조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개념인 시간성향을 복합적 시간성향과 단선적 시간성향으로 분류하고, 복합적 인성, 목표중심형과 A유형을 종합하여 복합적 시간성향으로 분류하고 단선적 인성, 과정중심형과 B유형을 단선적 시간성향으로 분류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인성적 특성(personality traits)에 초점을 둔다. 인성적 특성(personality traits)은 시간과 상황에 변함없이 지속되는 행동적 특성이다. 이러한 인성적 특성은 매우 어린 시절에 발달하며, 청소년 후기에서 고정된다고 볼 수 있다(임정빈 외 6인, 1994: 16-17).

## 2. 시간관리행동

시간관리란, 시간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사용하고 자신의 인생에 긴장과 이완을 주는("관리하는") 올바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계속 실천하는 것이다(Seiwert, 1993 : 14).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더불어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사회는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많은 과제와 활동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역할과 요구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직할 여유조차 없이 언제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간파할 수 없는 수의 주부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른채 권태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바쁜 사람과 한가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하면 시간에 쫓기는 강박관념이나 시간을 이용하지 못해서 오는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유를 갖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유성은, 1992). 자이베르트(1993 : 14-15)는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면 설령 아주 광범위한 일과 문제에 직면하여도 자신의 행동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한경미(1992 : 174)는 시간이란 다른 자원들처럼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간에 쫓기거나 한정된 시간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성취를 위해 시간사용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이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시간관리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시간관리행동의 전략<sup>2)</sup>을 제시하고 있다.

유성은(1992)은 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은 하루를 잘 운영할 것, 가족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할 것, 삶에 대한 태도를 뚜렷이 할 것, 창의적인 일처리 방법을 개발할 것, 단조로운 일을 잘 처리할 것, 변화를 잘 관리할 것, 감정관리를 잘 할 것,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관리행동들은 무엇보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전략들을 사용

하게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이베르트(1993)의 시간관리행동을 근거로 하고 한경미(1989, 1993), 조성은(1991), 홍성희(1993), 이정숙(199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시간관리행동을 계획/우선순위 설정, 표준변경/단순화, 목표설정, 심리적 긴장감 해소, 분담화, 기계화, 사회화를 시간관리행동으로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척도구성 및 신뢰도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여러 시간관련 문헌자료를

- 2) ① 스트로버와 웨인버거(Strober & Weinberg, 1980) : 취업주부가 경제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설적인 시간관리행동을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정생산의 양과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고용인, 남편 또는 자녀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방법, 둘째, 가정생산의 양과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재 기기(capital equipment)로 대체하는 방법, 셋째, 가정생산의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에 할당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다섯째, 여가나 수면에 할당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 ② 니콜스와 폭스(Nickols & Fox, 1983) : 스트로버와 웨인버거(1980)의 5가지 시간관리행동을 시간구매(time buying)와 시간절약(time saving)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본재기기, 편의품·서비스(고용인 포함)구매는 '시간구매'로 명명하고 가정생산의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거나,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간절약'으로 명명하였다. 부부와 두 자녀가족의 시간사용을 면접조사한 결과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아이돌보기를 외부인에게 더 의뢰하고, 외식빈도가 더 많고, 일회용품기저귀를 더 구매함으로써 '시간구매'전략을 사용하며 집에서 식사준비를 덜하고 가정생산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시간절약'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조성은(1991) :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를 스트로버와 폭스(1980)의 5가지 전략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족간의 가사분담,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 가사노동 재화의 사회화,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효율화, 여가 및 수면시간분배 조정의 7가지 관리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참고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설문지의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정관리학 전공 교수 1인, 박사 1인, 박사과정 3인과 철학 박사과정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4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 1) 시간성향

홀(1965), 블리스(1976)와 프리드먼·로젠먼(1970)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선적, 복합적 시간성향 행동특성을 4점 Likert척도로 19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수준을 떨어뜨리는 7문항을 제외한 최종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이 .84로 나타났다. 각 문항마다 1~4점까지의 점수를 주어 합산 점수(최저 12점, 최고 48점, 중앙값 30점)가 29점 이하를 단선적 시간성향으로, 중앙값인 30점은 단선적 시간성향과 복합적 시간성향을 함께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질적인 시간성향으로, 31점 이상을 복합적 시간성향으로 분류하였다.

### 2) 시간관리행동

자이베르트(1993)의 시간관리행동의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한경미(1989 : 1993), 조성은(1991), 홍성희(1993)와 이정숙(1994)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5점 Likert척도로 20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6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채택하였고 Cronbach'  $\alpha$ 값은 .84로 나타났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본 설문지의 작성을 위하여 1994년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4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설문지는 신뢰도 검사를 거친 후, 1994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인구구성비를 토대로 대도시를 특별시와 직할시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대도시로 선정하고, 중·소도시로는 공업도시인 여천과 울산을 선정하고, 농어촌(광산촌 포함)으로는 영월과 신탄진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설문지

700부를 배포하였다. 배포한 700부 중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573부였고 미기재된 69부를 제외한 50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택하였다.

### 2) 분석방법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주부의 시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계에 의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을 알아 보기 위해서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출생시기는 196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제개발 이후 세대가 271명(53.8%), 경제개발 이전 세대가 233명(46.2%)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대도시 거주자가 184명(36.5%), 중소도시 거주자가 259명(51.4%), 그리고 농어촌 거주자가 61명(12.1%)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169명(33.5%), 불교가 179명(35.5%), 그리고 기타가 156명(31.0%)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업여부는 취업이 254명(50.4%), 비취업이 250명(49.6%)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4)

변인	범주	빈도(N)	백분율(%)
출생시기	경제개발이후	271	53.8
	경제개발이전	233	46.2
거주지	대도시	184	36.5
	중소도시	259	51.4
	농어촌	61	12.1
종교*	기독교	169	33.5
	불교	179	35.5
	기타	156	31.0
취업여부	취업	254	50.4
	비취업	250	49.6
전체		504	100.0

\*천주교는 기독교에 포함, 기타는 무교 및 기타종교(2명) 포함

IV. 결과 및 해석

1. 주부의 시간성향

주부의 시간성향은 단선적 성향, 동질적 성향과 복합적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 2와 같이 평균이 32.3점으로 나타났다.

평균(만점)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32.3(48)	16	44	4.412

본 척도의 중앙값은 30인데, 평균은 32.3으로 단선적 시간성향이기보다는 복합적 시간성향에 더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조급함'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생활성향을 입증해 주는 시간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성향은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으로 볼 때 양극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면서도 중앙값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결국 시간성향은 어느 정도 양면성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성향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성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거주지와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p<.01)를 보인 거주지를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농어촌, 중소도시 거주자 순으로 보다 단선적 시간성향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 거주자보다는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자 순으로 보다 복합적 시간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화와 공업화가 더 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보다 자극이 많은 경쟁사회를 환경으로 하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복합적 시간성향에 더 가깝고, 그 역순으로 단선적 시간성향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취업여부(p<.05)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가 더 복합적 시간성향을, 취업주부보다는 전업주부가 더 단선적 시간성향이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성향의 차이 :  $\chi^2$ 검증의 결과

사·인 특 성	출생시기		거주지		취업여부		종교		
	경제개발 성향	경제개발 이전	대도시	중소도시	취업	비취업	기독교	불교 기타	
단선적	67( 28.8)	61( 22.5)	29( 15.8)	76( 29.3)	51( 20.1)	77( 30.8)	41( 24.3)	52( 31.0)	35( 22.4)
동질적	22( 9.4)	25( 9.2)	22( 12.0)	22( 8.5)	25( 9.8)	22( 8.8)	18( 10.7)	15( 8.4)	14( 9.0)
복합적	144( 61.8)	185( 68.3)	133( 72.3)	161( 62.2)	178( 70.1)	151( 60.4)	110( 65.1)	112( 62.6)	107( 68.6)
전체	233(100)	271(100)	184(100)	259(100)	254(100)	250(100)	169(100)	179(100)	156(100)
$\chi^2$	2.733		17.134**		7.657*		3.016		

\*p<.05 \*\*p<.01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규격화된 직업활동 이외의 시간 동안에 전업주부와 별 차이없이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와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면서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생활양상을 대변해 주는 시간성향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생활의 표준을 적절하게 낮추고, 여러 가지 대체 자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생활 속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행되어야만 하는 일은 각 가정마다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내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취업주부의 시간성향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생시기, 종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3.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

#### 1)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Scheffé검증

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간성향은 시간관리행동 중에서 사회화를 제외하고 계획/우선순위, 표준설정/단순화, 목표설정, 심리적 긴장감 해소, 분담화, 기계화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시간관리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우선순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Scheffé검증 결과 단선적 시간성향과 복합적 시간성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우선순위의 점수는 복합적 시간성향, 동질적 시간성향, 그리고 단선적 시간성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복합적 시간성향자와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말자'라는 시간관을 가진 단선적 성향자 중에서 '시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는 복합적 성향자가 시간과 동행하는 일에

표 4.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의 차이

시간관리행동	시간성향	평 균	표준편차	F값	Scheffé검증 (1) (2) (3)
계 획 /우선순위	단선적(1)	3.59	.8552	12.75***	
	동질적(2)	3.79	.7204		
	복합적(3)	4.00	.7710		*
표준설정 /단순화	단선적(1)	3.70	1.0005	3.62*	
	동질적(2)	3.64	.7048		
	복합적(3)	3.87	.8982		
목표설정	단선적(1)	3.24	.9200	48.06***	
	동질적(2)	3.85	.8841		*
	복합적(3)	4.11	.8101		*
심리적 긴장감 해 소	단선적(1)	3.28	.8598	20.84***	
	동질적(2)	3.38	.6774		*
	복합적(3)	3.82	.8644		*
분담화	단선적(1)	3.02	.8368	4.24*	
	동질적(2)	3.21	.7204		
	복합적(3)	3.28	.8630		*
기계화	단선적(1)	3.37	.8683	3.23*	
	동질적(2)	3.55	.9043		
	복합적(3)	3.61	.9439		*
사회화	단선적(1)	2.08	.9442	1.05	
	동질적(2)	2.32	.9350		
	복합적(3)	2.14	.9921		

\* $p < .05$     \*\* $p < .001$

있어서 계획과 우선순위의 시간관리행동을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표준설정/단순화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설정/단순화의 점수는 복합적 시간성향, 단선적 시간성향, 그리고 동질적 시간성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복합적 성향자의 특성 중에서 표준을 높게 세우는 경향이 많다고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리행동에서 이러한 특성이 과욕으로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점은 표준을 설정한 상황에서 여타의 자투리 일은 과감하게 제거시킬 수 있는 과업의 단순화 관리행동이 병행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세째, 목표설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cheffé검증 결과 복합적 시간성향과 단선적 시간성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단선적 시간성향과 복합적 시간성향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표설정의 점수는 복합적 시간성향, 동질적 시간성향, 그리고 단선적 시간성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단선적 시간성향의 목표설정 점수에 비해 복합적 시간성향의 점수가 다른 시간관리행동의 점수차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복합적 성향자는 잇따라 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단선적 성향자는 그냥 시간을 흘러 버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생활에 목표가 부진한 시간관리행동자이다. 따라서 복합적 시간 성향자가 목표설정에서 단선적 시간성향자보다 높은 행동점수를 보인다.

네째, 심리적 긴장감 해소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cheffé검증 결과 목표설정과 마찬가지로 복합적 시간성향과 단선적 시간성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복합적 시간성향과 동질적 시간성향자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리적 긴장감해소의 점수는 복합적 시간성향, 동질적 시간성향, 그리고 단선적 시간성향 순으로 나타났고, 단선적 시간성향과 동질적 시간성향의 심리적 긴장감 해소 점수에 비해 복합적 시간성향자의 행동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무엇이든 느긋하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생활철학을 가진 단선적 시간성향자가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가지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 것이다. 따라서 늘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합적 시간성향자가 심리적 긴장감 해소 관리행동을 더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분담화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cheffé검증 결과 복합적 시간성향과 단선적 시간성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분담화의 점수는 다른 시간관리행동에 비해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복합적 시간성향, 동질적 시간성향, 그리고 단선적 시간성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높은 목표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합적 시간성향의 주부는 누가 간섭하지 않는 이상 시간에 별 구애 받지 않고 생활을 구성하는 단선적 시간성향 주부에 비해서 가족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분담화 시간관리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계화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cheffé검증 결과 복합적 시간성향과 단선적 시간성향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합적인 행동양식을 추구하는 복합적 시간성향자가 가족생활에 있어서 복합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사용을 더 활용한다는 결과이다.

사회화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화는 다른 시간관리행동들 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관리행동에서 사회화는 내 손으로 하기보다는 남의 손에 가사노동을 맡기는 것이므로 '부엌은 안주인만의 영역'이라는 과거시대의 의식이 '내 살림을 남에게 맡길 수 없지 않느냐!'는 의식으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부들에게 있어서 사회화의 관리행동은 시간적 가치보다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금전자원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단선적 시간성향 주부보다 복합적 시간성향의 주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간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시간성향자의 특성이 말해주듯 동시에 몇가지의 활동을 행하며 속도에 보다 민감한 유형적 특성을 갖기에 단선적 시간성향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시간관리행동을 잘 하고 특히 계획/우선순위, 목표설정과 심리적 긴장감 해소 행동점수가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시간성향의 중요성을 밝히고, 주부의 생활경영과정에서 시간사용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가치관 연구의 한 자료가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시간성향은 단선적 시간성향이므로 복잡한 시간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의 시간성향에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거주지와 취업여부였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복잡한 시간성향에 더 가까웠으며, 취업주부일수록 더 복잡한 시간성향에 가까웠다.

세째,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에서는 사회화를 제외한 모든 관리행동 계획/우선순위( $p < .001$ ), 표준설정/단순화( $p < .05$ ), 목표설정( $p < .001$ ), 심리적 긴장감 해소( $p < .001$ ), 분담화( $p < .05$ ), 기계화( $p < .05$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시간관리행동에서 단선적 시간성향 주부보다 복잡한 시간성향주부가 더 시간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시간성향은 물리적 시간은 불변이지만 심리적 시간은 자신의 인식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시간관리의 기본자세와 관련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자원을 부여받지만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현대인들은 늘 조급하고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의 특성상 보수성이 강하고, 다른 가족원에 의해 지배되기 쉬운 타율성과 수동적인 생활의 지겨움이 자칫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간사용의 효율성 여하는 시간관리행동에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

다.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고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도 없는 것으로 자연히 소멸되는 속성이 있기에 시간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생애를 통해 익혀가야 할 중요한 능력자원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의 기초는 바로 사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성향에 있음을 주목하여 주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 및 사회화 과정에서도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시간을 전략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시간개념의 사회화가 의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자신과 사회의 생산성 향상 및 만족의 극대화와 통하는 길이라 믿어진다.

### 참고문헌

- 1)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 이규태(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신원문화사.
- 3)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연숙·이순형 외(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갈등 및 부작용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5)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유성은(1988). 시간관리와 자아실현. 생활지혜사.
- 7) \_\_\_\_\_(1992). 현대여성의 시간관리. 매일경제신문사, 머리말.
- 8) \_\_\_\_\_(1994). 리더는 시간을 이렇게 쓴다. 21세기 북스.
- 9) 윤은기(1992). 時테크 : 시간창조의 기술. 유나이트 드컨설팅그룹.
- 10) 임정빈·이영호 외(1994) 인간자원관리론. 학지사.
- 11) 제미경·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 12)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95-112.
- 13)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14) \_\_\_\_\_(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15) \_\_\_\_\_(1992). 시간관리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 2, 43-55.
- 16) \_\_\_\_\_(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 변수 :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83-95.
- 17)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55-68.
- 18) Bliss, E.C.(1976). Getting Thing Done,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 19) Hall, E.T.(1965).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 Anchor Books.
- 20) Januz, L.R. & Jones, S.K.(1984). Time Management for Executives, 이 영 옮김, 우아당.
- 21) Nickell, Rise, A.S. & Tucker, S.M.(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22) Seiwert R, J.(1993). Time is money : Save it. 박기안 옮김, 시간관리학, 미래비즈니스.